

「광개토대왕」 국제 학술세미나

1천5백년전 만주발판을 호령 하던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삶과 업적을 탐구해 보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에 관한 고찰」 국제 학술세미나가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다. 金道鉉·문화체육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 성균관대 李相日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 김일성대학을 나온 수미야 바타르 몽골 과학아카데미 상임연구원이 「광개토대왕비로 엮은 고구려와 중앙아시아」를 주제로

뮤지컬공연 앞서 업적조명

에서 열렸다. 민족표현예술연구 소(대표 吳賢珠)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창무극단이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선보일 뮤지컬 창무극 「광개토대왕」의 공연에 앞서 학문적으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조망해 보자는 취지에서 열렸

광개토대왕비문에 나오는 지명과 몽골과의 관계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선보였고,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의 李亨求교수와 高勝吉 중앙대 교수가 각각 「광개토대왕의 업적고찰」과 「광개토대왕 시대의 공연예술」을 주



◇왼쪽부터 崔榮喜 吳賢珠 수미야 바타르 金道鉉 安東臺 李鍾德 鄭炳浩씨.

제로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밖에도 鄭炳浩 중앙대 명예교수, 朴性鳳 경희대 명예교수, 張哲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와 李鍾德 예술의 전당 사장, 趙由典 국립민속박물관장, 安東臺 변호사,

崔榮喜 前국방장관, 金寬華 아시아신학대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이날 오후6시 프레스센터 20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기념리셉션에서는 창무극 「광개토대왕」의 일부가 實演되기도 했다.

<金翰秀기자>

모임 만남

동아그룹 창립50주년

것을 토대로 오늘날의 좌표와 내일의 지표표를 마련해야 할 것이

로 앞으로의 역사를 창조해나가

고 『검허하면서 도 담당한 자세 교동위원장, 梁和植국회농수산위원장, 민자당 俞成煥의원, 李植儀의원, 자민련 趙重英사무총

한 회 5 회 2 타 클 을 주 국 단 친